

| KARA 서포터즈 레이싱팀 인터뷰 | 원레이싱팀



지난 5월 23~24일 송도 도심 서킷에서 열린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KSF) 2Round에서 레이싱카 전문 메인テナンス 팀으로 2011년 창단하여 올 해부터 자체 팀으로 레이스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원레이싱팀의 유병욱 대표, 이재하 차프 미케닉, 염승훈 선수를 KARA 대학생 서포터즈가 만나보았습니다.



대표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레이싱팀 대표 유병욱입니다. 나이는 서른다섯이고, 모터스포츠 쪽에 일을 하게 된지는 14년째 입니다.

원레이싱팀을 만들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팀 만들게 된 계기는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재미있고 자유로운 레이스를 하고 싶어서 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레이싱팀을 운영하시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스폰서가 없기 때문에 경기차량 메인テナンス를 하면서,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도 스폰서가 있으면 선수들한테 뭔가 더 좋은 혜택도 줄 수 있고, 일하는데 있어서 좀 더 즐겁고, 편하고, 더 질 높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레이싱팀만의 문화가 있다면?

‘정답은 없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팀은 항상 가족 같은 분위기와 자유로운 분위기, 즐기는 분위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경훈 선수와 염승훈 선수를 영입하셨는데, 그 이유와 1차전 성적으로 볼 때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증된 프로급 드라이버들은 많지만 아마추어리즘을 바탕으로 함께 바닥부터 시작해서, 목표까지 올라

갈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둘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선수의 1차전 성적으로 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현대자동차 모터페스티벌과 함께 열리는 KSF 송도서킷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 시가지 서킷이다 보니 차량 데미지가 많이 가는 부분도 있고 안전상 좀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팀 구성원들과 드라이버 간의 의견교환이 잘 이루어지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대자동차 모터페스티벌 행사로 인해 국내 모터스포츠가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송도서킷을 찾아온, 자동차와 모터스포츠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자동차가 좋아서, 레이스가 좋아서 오는 학생들한테는 열정 하나만 있으면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레이싱팀 이재하 치프 미케닉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재하라고 하구요. 올해 서른살이고, 자동차가 좋아서 미케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서킷과 비교해 송도서킷에서의 차량 세팅의 차이점은?

일반 서킷과 노면이 달라 타이어 및 서스펜션에 충격이 많이 갑니다. 노퍽이 좁아 작은 실수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드라이버가 갖는 부담도 큼니다. 그래서 차량 세팅을 조금은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경훈 선수, 염승훈 선수와 함께 KSF에 출전하시는데, 현재 차량 세팅과 드라이버 컨디션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나요?

일단 저희 팀의 목표가 우승이기 때문에, 1차전에서 우승을 못 한 것에 대해선 조금 섭섭할 수도 있지만 스포츠라는게 조건에 따라서, 운도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매 경기 꼴등을 하더라도 만족하고, 1등을 해도 만족합니다. 등수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있다는 자체, 제가 차를 만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치프 미케닉으로서 바라본 정경훈 선수와 염승훈 선수는 어떤 드라이버인가요?

염승훈 선수는 공격적인 스타일이며, 정경훈 선수는 섬세한 드라이버입니다.편견일수도 있지만, 상반된 두 드라이버의 체구와 비례한다고 할까요? (웃음)

차량 세팅에도 드라이버의 성향을 많이 반영하시겠네요?

네, 다른 팀도 마찬가지겠지만, 원메이크 경기에서 차량의 엔진이라던가 퍼포먼스적인 부품들은 다 똑같지만, 세팅 자체는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선수이던 세팅이 같은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송도 서킷에서의 차량 세팅은 1차전을 치렀던 영암 KIC에 비하면 거의 180도 바뀐 상태입니다. 드라이버의 성향뿐만 아니라, 항상 다른 조건에 맞춰서 세팅을 해야 한다는 재미 같은 것도 있습니다

‘미케닉’이라는 직업에 대해 얘기해 주신다면?

연예인이 있으면 뒤에서 무대를 꾸미는 조명, 카메라, 무대감독이 있듯, 드라이버의 뒤에서 일하는게 미케닉 입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드라이버가 다 받지만 팀이 있기 위해서는 팀 크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케닉들은 우승의 전제조건인 차를 만드는 일에 대한 미케닉들은 우승의 전제조건인 차를 만드는 일에 큰 자부심을 갖고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드라이버나 미케닉, 매니저를 따지지 않고 팀 내에 모든 인원들이 하나되어 화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싱팀의 미케닉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미케닉에 대해 지나치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나는 자동차를 공부해서 미케닉이 되겠다, 엔지니어가 되겠다’라고 그냥 단계단계 자연스럽게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다른 직업들처럼 자연스럽게 직업이 되는 종목으로 자라집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레이싱 소속으로 KSF 제네시스쿠페20 클래스에 참가하고 있는 엄승훈 선수입니다.

레이싱은 어떻게 입문하셨나요?

워낙 자동차 자체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는 산에서 타는 와인딩을 주로 즐기다가, 염암에 F-1경기장이 생긴 뒤로 서킷이 너무 맘에 들어서 시간만 나면 서킷에 가서 연습하고 타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KSF는 첫 출전이신데 많은 팀 중에 원레이싱팀에 소속되신 사연이 있으신가요?

작년까지 슈퍼챗린지에 아마추어로 출전하면서, 차량 세팅과 메인터넌스를 원레이싱에서 담당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인연이 되었고, 좋은 기회로 올해부터 KSF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예선 기록으로 비춰봤을 때, 제네시스쿠페20 클래스에 대한 적응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나요?

적응은 점점 하고 있는 중이구요, 차량 세팅은 워낙 팀에서 잘 봐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송도서킷 같은 경우, 올해 처음 달려보는 서킷이라서 조금 생소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게 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KSF에서의 계획과 포부가 있다면?

일단 포부는 누구든지 똑같지만, 드라이버로서 최고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생각입니다. 계획이라면... 지금은 적응 중이니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버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 모터스포츠도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인지도라던가 어린 친구들이 접하기에는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개방 될 것 같아요. 튜닝이라든지, 경기장도 제가 어렸을 때만해도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르고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는데 요즘은 점차 많아져서 레이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점차 서킷을 경험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구요. 프로 드라이버들의 멘토링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터스포츠를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터스포츠에 관심 있는 어린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KARA 대학생 서포터즈 1기

• 기획/취재: 최호중, 홍준영

• 사진: 김효원, 이성호